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14 년 2 월 12 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4 장

담당: 홍보실 김성연 연구원

전화: 02-3701-7349

이메일: sungyeon@asaninst.org

010-8867-0767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리포트 “일본을 향한 두 시선:

한국인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함의” 발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 안보협력은 지지, 독도 문제, 가장 큰 걸림돌

-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 여론연구프로그램은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실시된 아산데일리폴 여론조사 (2013.12.29~31, 2014.01.01~03)와 아산연례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한 아산 리포트 “일본을 향한 두 시선: 한국인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함의”를 발표했다.
- 한국인은 일본의 거듭되는 독도, 과거사 도발로 인해 일본을 불편한 이웃으로 보면서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을 해야 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했다.
- 한일관계 개선과 안보협력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었다. 63.9%의 한국인은 중국 부상시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중국의 팽창에 따른 안보위협 증가를 두 국가의 협력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중국 부상시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 중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지했다.
- 다수인 42.1%의 한국인은 독도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봤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면서 동시에 중국 부상시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217 명의 용일(用日)적 태도를 가진 집단에서도 49.5%가 한일관계에 있어 독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답했다. 김지윤 여론·계량분석 센터장은 “향후 일본이 독도 관련 도발을 거듭할 경우 한국인의 대 일본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우리 국민은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한일관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여론 역시 정부의 한일 양국 갈등 해소 움직임 및 한일 안보협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은 진일보된 한일간 역사 갈등 문제 인식을 보여줘야 하고, 현재와 같이 일본과 가까운 모습을 유지할 경우 반일감정이 반미감정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한일관계와 일본에 대한 국내 여론을 분석한 아산 리포트 “일본을 향한 두 시선: 한국인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함의” 보고서를 2014년 2월 12일 발표했습니다.

주요결과

- ✓ **불편한 이웃 일본: 일본 호감도 하락과 일본발 안보불안**
 -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2010년 10점 만점에 4.24점에서 2011년 3.36점으로, 2012년 2.71점으로 하락. 2013년 1월에는 3.31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1년 내내 부침을 거듭하며 2014년 1월에는 2.38점으로 나타남.
 - 아베 총리 호감도는 2013년 7월 10점 만점에 1.65점이었으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인 2014년 1월에는 0.99점까지 하락. 한국인의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0.99점)과 같았음.
 - 최근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66.8%로 다수(긍정적이다 18.9%).
 -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사적 위협인지 물어본 결과, 62.0%가 위협으로 답변(위협 아님 31.6%). 미래 일본이 군사적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은 64.7%였음. 한국인은 일본을 북한과 유사한 수준의 군사적 위협으로 여김.
- ✓ **전략적 파트너 일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관계개선은 필요**
 - 한국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2012년 7월 44.3%가, 2013년 9월 60.4%가 필요하다고 답함.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인 2014년 1월에도 과반인 50.7%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음. 일본의 과거사 도발과는 별도로 북한 안보 위협에는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경향이 나타남.
 - 한일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3년 9월 58.1%, 10월 67.6%, 12월 49.5%로 다수를 차지했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 역시 2013년 12월 57.8%로 다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내 여론이 확인됨.
- ✓ **한일관계의 변수 중국**
 - 중국 부상시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은 63.9%(불필요 26.2%). 중국 부상시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 중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역할론(65.2%),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57.7%), 한일군사정보협정 필요성(66.0%)을 지지하고 있었음. 중국의 역내 안보 역할 확대에 따른 한일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타남.
- ✓ **한일관계 개선의 변수: 독도, 위안부(성노예), 과거사 문제**
 - 한일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독도 영유권 문제(42.1%)였음. 그 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32.9%), 위안부 사과 및 배상 문제(13.8%) 순이었음.
 -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중국 부상시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집단 217명을 따로 분석한 결과, 한일관계 개선의 변수로 독도 문제를 든 비율은 49.5%로 높아짐(역사 교과서 27.1%, 위안부 17.4%). 한일관계 개선과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층에서 역시 독도 영유권을 한일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긴 만큼, 향후 일본이 독도관련 도발을 거듭한다면 한국인의 대 일본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
- ✓ **동북아 정세와 한일관계**
 - 일본에서는 올 2월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3월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 한국인이 한일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요소로 독도를 꼽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독도 관련 도발을 이어가면 실용적 관점의 한일관계를 요구하는 여론마저 일본에 등을 돌릴 수 있음.

-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처럼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허용하는 모습만을 보일 것이 아닌, 한일간 역사 갈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통해 한일관계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일본을 편드는 듯한 미국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반일감정이 반미감정으로 확대될 수 있음.
- 한국인은 중국과는 동아시아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군사적으로 점차 거대해지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 최근 양국 정부의 신뢰가 두텁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3년 가을 중국의 급작스런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처럼 중국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커질 것임.
- 우리 국민은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한일관계를 바라보고 있었음.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여론 역시 한일 양국 갈등 해소 및 안보협력을 지지할 것임.

조사개요

아산연례조사 조사개요

2010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2,0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 년 8 월 16 일~9 월 17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2,0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 년 8 월 26 일~10 월 4 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5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 년 9 월 24 일~11 월 1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5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 년 9 월 4 일~9 월 27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아산데일리폴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1.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 조사관련 문의: 김지윤 연구위원(02) 3701-7354, jiyoon@asaninst.org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 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 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 호 수용소 탈출》, 《선거연구 시리즈 1,2,3》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 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 위를 차지하였습니다.